

인사말

추운 날씨에도 발표식을 빛내주기 위해 찾아준 내빈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계종은 올해 초부터 불교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성찰하고 시대적 과제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21세기 불교’로 혁신하기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은 그 자성과 쇄신 결사가 우리 사회에 내놓은 첫 결실입니다. 나아가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 갈라진 사회를 대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찾아주신 이웃종교 지도자 여러분, 정관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지도자 여러분,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불자 여러분들을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을 증명해주시는 분으로 모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한국불교는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 발표식을 하는 조계사 마당 가운데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 왜나무 밑에 ‘3.1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 건물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의 주역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92년 전 당시 종교인들은 작은 차이를 넘어 일본 식민지에 항거하는 거족적 독립운동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종교평화를 넘어 시대적 요청에 온 몸을 던진 것입니다. 종교평화 발표식 장소가 이렇게 독립선언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은 역사적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 의미가 남다르고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선 종교간 사소한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돼 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종교 간 평화와 협력의 전통이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우려스

러운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종교평화 문화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거리가 21세기에도 더 발전하고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은 우리 사회 종교평화, 사회대통합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먼저 공손하게 손을 내밉니다. 이웃종교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의 손을 따듯하게 맞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굳게 손을 맞잡으면 종교평화는 물론이고 온 사회에 평화와 행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11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